

고대법학

2013 Autumn, Vol. 4

발행일 2013년 11월 30일, 제4호 발행인 신영호 편집인 이주원 편집부 편집장 이지현(4기) 편집부 김승현(4기), 김혜경(4기), 이윤석(4기), 양현주(5기), 유지형(5기), 조예진(5기), 황정원(5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1 기획·편집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PURE AS SNOW

- 02 INTERVIEW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03 COLUMN 이레적 이레귤러(irregular)
- 04 STUDY METHODOLOGY 공부방법론
- 07 ALUMNI NEWS 구자균 교우 사진전
- 08 SCHOOL LIFE 방송통신법학회
- 10 SEASONS OF KU LAW 공익법률상담소 CLEC 조정클리닉 신설
- 12 GRADUATE INTERVIEW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기초교육 강화, 학습여건 조성에 주력”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제일의 법학전문대학원 만들 터

지난 7월을 끝으로 제6대 박노형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이후 신영호 교수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이후 제3회 변호사시험 대비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는 신영호 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일들과 향후 계획에 관해 들어보았다.

김승현/이윤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원장 직에 취임하신 소감은?
평교수일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운영에 대해 한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입장이었다. 이를테면 법전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지를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학생들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평교수일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와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본부와 의견 조율, 개인 학습실 설치문제 해결해 보람

취임 이후 어떤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지? 큰 변화, 두 가지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학교 내적으로는 CJ법법관 준공 이후 이루어지지 못했던 개인학습실 설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교육관에 있는 고시설 이전 문제로 본부와의 조율이 잘 안되어 1년간 지지부진했는데, 본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생겨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처음 목표했던 것에 비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진 못했지만, 법전원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형로펌과 교수들의 조언 경험, 학교 발전방안 모색

대외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캠퍼스 내에만 안주하려 하지 않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대형로펌과의 관계 및 고대 출신 법조인 선배들과의 관계 등을 좀 더 긴밀하게 유지해나가려 하였다. 대형로펌들을 찾아다니며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우리

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인도하고자 한 방향과 실무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였고 더불어 취업에 대한 상담, 부락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전원 학사운영자문위원회 변호사협회장이신 이진강 변호사님을 비롯해 고대 출신 법조인 선배 분들을 찾아뵙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듣고 실제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임기동안 진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이루고 싶으신 목표는 무엇인지?
원장으로서 외부에 나가 로펌의 채용 담당 변호사들을 만나본 결과,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기본적 소양이 잘 갖춰진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교과 운영 방향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 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그러한 목표를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존 과정에 추가가 되다보니 학생들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학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으나, 여타의 로스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 그 정도의 노력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내년 1월에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기존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을 경쟁력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조그마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긴 안목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다보면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제일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에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께 기본적인 교육 이외의 부담을 많이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고민하고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년 1학기 기숙사 착공 목표로 토지소유자 설득에 주력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미결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사 건립문제이다. 부지를 구입한 지는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입 당시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3년 내에 건축 목적에 따른 건축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를 유예 받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해서 유예 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착공을 하여야 할 것인데, 주위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우선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보아야 할 것 같다. 금전적인 문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학기쯤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전용기숙사를 짓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법전원에서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기대에 다다른만한 능력 있고 인성 바른 법조인들을 양성해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부 출신자들을 받아들여 교육시키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대정신을 익히고 고대의 학풍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기숙사생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처음 기숙사 건립 계획을 세운 채이식 교수님의 뜻이었는데, 이에 깊이 동감한다. 또한 1학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1년간 생활하며 기본3법을 익히는 데에 전념한다면 향후 필요한 실력을 갖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시가 아까운 3학년 시기에도 기숙사 이용을 통하여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4개월 남짓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고 계신 점은?
사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학생들이 매학기 비싼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지만, 교육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이 생각보다 막대하다. 학교 재단에 의해 재단전입금 형태로 재정적 보완

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단도 여력이 없어 힘든 것 같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과대학 시절에 형성되었던 발전기금을 활용해 적자를 상당 부분 메워왔다. 특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6억 정도를 전용해왔다. 하지만 그마저도 내후년이면 고갈될 예정이다.

‘로스쿨 후원은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확산시켜야

그래도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인데 우리가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 ‘변호사라는 개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에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학원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법조인 양성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순한 직업적 도구로서의 변호사 자격 취득 이상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런 점은 사회가 일정부분 떠맡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도 사명감, 품성 등을 갖추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준, 능력을 갖추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후원이 개인의 영달이나 출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를 위한 투자이자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입학 당시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고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해야 할 양이 매우 많고, 학생이 느낄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여기서 보낸 3년은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긴 시간이 아니다.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공부를 하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인생을 넓게 보며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장래에 대한 생각도 했으면 한다. 3년간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항상 자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도 가끔 학습실을 둘러보며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한다. KL

이례적 이레굴러 (irregular)

이윤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실익 없는 밤산책에서, 밤바람에서 겨울 냄새가 난다. 이제 몇 밤 자고 나면 겨울이 선언되는, 그런 세밑이다.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던 올 한해도 이렇게 까무룩 지나가나 싶다. 슬슬 입기 매매해져 버린 몇 벌 안 되는 가을 옷들은 다시 수납하고, 이제는 북극곰과 겨울잠 협약을 체결할 듯한 복장을 입을 때가 된 것이다. 이제 낙엽더미만 사라지면 완전한 겨울. 사람이 딱 중심을 잡지 못한 탓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신나고 아래로 내려가면 기죽는 내 자신이 마치 필랑필랑 바람에 휘휘 날아다니는 낙엽 같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에 첫눈도 왔다지. 여기저기 눈 소식이 들린다. 눈 오던 여러 날이 떠올라도 이젠 머~언 이야기. 비~인 밤바람 소리. 눈은 저절로 내려오고 기억은 저절로 멀리 간다. 나는 어느새 기억에서 멀어져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빠 가는 기억에겐 손을 흔들어주고, 돌아서서 다가오는 내일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세상에 가득한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늘 변한다. 나도 그 일부인 듯 뿌듯할 때도 있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낙심하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기도 하고, 세상에서 나는 상례에는 없는 이례적인 존재이고, 레귤러(regular)하지 못한 이레굴러(irregular)인 듯한 그 느낌이 조금 쓸쓸하지만, 그런 또 그 거대로 세상과 격리된 느낌이라서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고아해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여러 감정 중 가장 두려운 건 박탈감이다. 그것만큼은 언제나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닌가 싶다. 울해도 못 지킨 다짐들이 쏟아져 내린다. 못 지키고 땀겨 쳐버린 다짐들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에게 복수할 것 같다. 그만큼 일상화된 나태와 맞서서 싸울 필요가 있다. 새 노트를 사건, 혹은 새 필기구를 사건, 새 물건을 처음에 갖게 되면 그 새로움에, 일상에 들어와 버린 이례적 이레굴러에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되었음에도 낯설음 느끼기 마련이다. 떨어뜨리고 손에 익고, 몇 페이지에 끄적이고 난 다음에야, 스크래치와 충격이 가해지고 난 다음에야, 손때 묻은 그 물건들이, 그 상황들이 모두 내 것이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 제서야 이례는 상례가 되고, 이레굴러는 레귤러가 된다. 잃어버린 다짐들이 조금은 낯설겠지만 그 다짐들을 다시 지키는 데 익숙해진다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례적이고 이레굴러한 돌츠은열세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KL

지 상 중 계

박해식 법무법인(유한)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변호사 특강

실무가가 본 법학공부

기본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 해결책 제시해야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공정거래그룹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박해식 변호사가 지난 9월 16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가가 본 법학공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1학년 학생들에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설정해야 할 법학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예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유용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법조인"이며, 이러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설과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법률정보를 습득하고, 2단계로 법률정보에 실무 경험을 보태어 법적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또 3단계로 법적 지식에 영감을 보태어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축적하고, 4단계로 지혜에 상상력을 결합해 가장 유용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그림 참조〉 박해식 변호사는 그 중에서도 시작점이 되는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본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어 영감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법학공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학습대상의 선정과 학습' 및 '올바른 학습방법의 선택과 실천'이다.

'올바른 학습 대상의 선정과 학습'은 앞서 강조되었듯이 기본법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한다. 또한 '올바른 학습방법의 선택과 실천'을 위해서는 반복학습을 통해 법적 지식의 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체계적, 종합적 이해를 위해 수강과 학생들 간의 공동학습이 권장된다.

1학년 법학공부의 중심은 기본법에 대한 이해 이번 강연은 비법학사 출신인 학생들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학공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기본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1학년 시기의 법학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KL

로스쿨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조와 2조에는 로스쿨의 목적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로스쿨은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추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법조인은 어떤 법조인인가?

박해식 변호사가 생각하는 '우수한 법조인'은 "법에 대한

창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법조인

Legal Data(학설, 판례 등)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법률정보 습득 1 단계

Legal Information에 실무 경험을 보태어 법적 지식 함양 2 단계

Knowledge에 영감을 보태어 Solution을 위한 지혜 축적 3 단계

Wisdom에 상상력을 더하여 가장 유용, 적절한 Solution, 즉 창조적 해결책 제시 4 단계



CJ 법학관 열람실 입실

CJ 법학관 열람실 입실 준비 과정이 완료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열람실 좌석이 배정되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3학년과 재시생은 독립되어 있는 4층(138석) 열람실에 배정하였고, 1학년과 2학년은 2층에 개인 좌석을 배정(1,2학년 열람실 구분)하였다. 3학년은 2013년 9월 18일에 열람실에 입실하였고, 2학년은 10월 1일에 입실을 완료하였다. 1학년 일부 학생들은 10월 12일에 열람실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학생들은 10월 16일 입실하였다. 학교 측은 편의를 위해 2층의 한 열람실(24석)을 노트북 일시 사용 전용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열람실은 일단 당일 24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실 24시간 운영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는 난방 문제 등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모아, 보다 개선된 열람실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열람실 입실로 인하여 학생들은 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 KL

선배들이 귀땀하는 공부방법론

스마트하게 공부하되, 자기 자신을 믿고 쉽 없이 정진하라

오는 2014년 1월 3일부터 제3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다. 시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3기 김병석, 문선영 학우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1, 2학년 후배들에게 공부방법론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법학 공부를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변호사시험에 대해 막연히 막막함을 느끼는 후배들에게 경험자의 생생한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_유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기본 개념학습과 함께
방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김병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로스쿨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변호사 시험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법학사로서 그동안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선배로서 후배님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법학사라면 방학 중에
민사법 반복 학습하길

먼저 방학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는 다들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방학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다음 학기 과목을 예습하신다면 다음 학기 학점관리나 기본적인 법학실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법학사이신 분은 특히 방학 때 민사법을 되풀이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내용 잘 정리해두면
변호사시험 준비에도 도움

다음으로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익히고 논리적 흐름과 근거를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정확한 법률용어를 써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글을 좋게 평가하시고 법적 근거(특히 법조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학교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3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새로운 책을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내가 정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有志者,事竟成(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결과물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각기 다른 꽃 중에서 가을이나 겨울에 피는 꽃도 있듯,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면 언젠가 자신의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입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학교수업을 충실하게”

문선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도 변호사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담아 후배님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1,2학년 후배님들은 변호사시험을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수험을 위한 공부(압축, 요약, 암기)는 3학년 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7법 기본서 정독하고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라

학기 중에는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고, 방학 때는 실무수습 나가느라 바쁘신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7법 기본서를 충실히 정독하시면, 투자한 시간 이상의 보람과 실력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치지기 쉬운 공부리듬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많은 의지가 되며, 실력 향상과도 직결됩니다.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난 3학년 2학기부터는 사례를 실제 답안지처럼 써가면서 풀어보고 돌려가며 첨삭하는 스터디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자극이 되고, 부족한 면을 확실히 채울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실무 등 실무과목 수강
많을수록 좋아

학교 수업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민사재판실무는 그것을 듣기 전과 후로 나눌 만큼 훌륭한 수업입니다. 민사기록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각 기록연습 과목들도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실무과목들을 많이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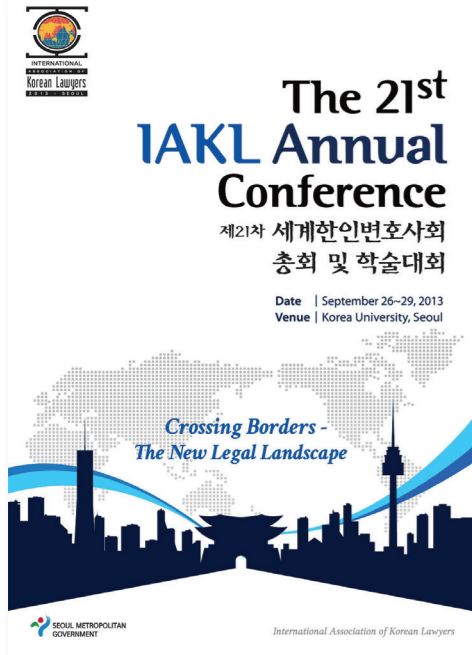
변호사시험은 공부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합격률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닐 겁니다. 사실 아직 재학생 신분으로 이런 팁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수험생활을 하시다 보면 크게 좌절하는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마지막까지 정진하고 있습니다. KL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성대히 폐막

본교 CJ법학관에서 세법 등 분야별 세미나와 멘토링 세션 진행

김혜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제21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9월 28, 29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한인변호사회 (IAKL)은 1988년에 창설되어 2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제적인 법률가 단체이다. IAKL은 세계 곳곳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로 활약하는 우리 민족 출신의 법조인들인 '한국'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기조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 함께 모인 단체이며, 한인 법률가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이다.

로스쿨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에도 기여

IAKL은 주무관청인 외교통상부로부터 2007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로스쿨생들에 대한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법률가 지도와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부가 본 총회 및 학술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3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세법, 개인정보 보호, M&A, 지적재산권, 파산, ADR 등 많은 전문분야에 대한 세미나와 만남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세미나는 한국의 대형로펌들 또한 스폰서로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를 연사로 하여 진행되었고, 만남은 해송법학도서관 앞 정원에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또한 일정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어 인재양성의 의미를 더했다. KL

ICR센터 전국 논문경연대회 개최

윤호상 학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명령에 관한 소고'로 우수상 수상

김승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nnovation Competition Regulation Law Center)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논문대회에서는 ICR센터 기관 후원회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등 6개 로펌의 변호사들이 논문심사에 참여하였고, 수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는 후원 로펌에 인턴 등으로 지원 시 제출할 수 있도록 ICR센터가 대회 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10월 26일에는 ICR센터 신진학자 학술대회에서 수상자들에게 논문 발표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본교에서는 5기 윤호상 학우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명령에 관한 일반론 및 독점규제법 상 시정조치제도의 규율상황과의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명령에 관한 입법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명령에 관한 소고'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KL

정리_김승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주요 학술행사 일정



10월 10일 제16차 올바른 세제, 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

주제 증여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

10월 15일 제41회 해외저명인사 특강

주제 Global Health Law
연사 Oscar Cabrera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보건법센터 Executive Director)

10월 17일 제42회 해외저명인사 특강

주제 의사의 자살부조의 한계
연사 Thomas Hillenkamp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교수)

10월 24일 제3회 사이버, 법 클로키움

주제 사이버위험의 이해
연사 한희 교수(한독미디어대학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10월 25일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주제 동북아시아의 해상보험법 일반 / 동북아시아의 해상보험법 특수문제 / 동북아시아의 최근 해상법 동향
연사 채이식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유기준 국회의원, IWATANI Shigeo 한중일 협력사무국 총장, 윤성근 부장판사, 박세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문광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울), 정병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11월 1일 ICR 센터 - 한국경쟁법학회 - 서울대 경쟁법센터 공동학술대회

주제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국제 동향과 한국 발전 방향
연사 Allen P. Grunes (Geyer Gorey LLP, 변호사), Ioannis Lianos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교수), Yang Dong (중국 Renmin University 교수), Zhan Hao (AnJie Law Firm 변호사), Annie Ying Xue (AnJie Law Firm 변호사),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11월 5일 제43회 해외저명인사 특강

주제 홍콩법 개관, 변호사양성 / 박사과정, 해상사건의 처리
연사 Prof. Felix Chan (University of Hong Kong 법대 부학장)

11월 15일 (사)한국유통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주제 疏通과 法 - 그 발전적 소통의 서막을 열며 -
연사 최영홍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문지 교수(배제대), 박석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2013 고대 법대 교우회 행사



제3회 법대교우회 바둑대회 열려

일반 교우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한 바둑대회가 3회째를 맞아 흥익동 한국기원 전문기사 대국실에서 선후배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즐겼다.



제1회 등산대회 개최, 우의 다져

법대교우회(회장 이귀남, 행69)가 10월 12일 제1회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원 중심의 교우회를 넘어 일반 교우들이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매년 바둑대회를 개최해 온 법대교우회는, 올해부터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교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첫 산행을 도봉산에서 가졌다. 150명에 달하는 교우가 참석하여 맘 흘리며 손 잡아 주며 화기애애하게 산행을 마쳤고 뒤쪽이 자리에서는 회장님 주도로 학번별로 건배를 제의하며 우애를 다졌고, 내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영진교우 축하, 동기회장단 간담회 및 모교에 후원금 전달

금년 상반기 중에 사회 각 분야에서 영진하여 두각을 나타낸 교우들을 초대하여 각 학번 동기회장단 여러분이 동참하여 축하하고 격려하였다. 아울러 모교에 2천만 원(상반기 분)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고문 자문역 초청 간담회 개최

교우회는 매년 가을에 대선배님들을 초청하여 교우회 현황을 설명 드리고 교우회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고견을 듣는 행사를 가져왔다. 올해는 10월 2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주피터룸에서 김진웅 전 총장님 외에 여러 고문 자문역님들을 모시고 만찬과 여흥, 선물을 준비하여 대선배님들의 귀한 말씀을 들었다.

정리_이지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행복한 녹색세상을 만들어가는 Green CEO

구자균 교우 사진전

이지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CJ법학관 3층 로비에 구자균 교우(법학 76 · LS산전 부회장)의 사진이 전시된 작은 갤러리가 조성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구자균 부회장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국제경영학과 기업재무를 전공해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7~2007년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2009년 LS산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LS메탈/대성전기 대표이사 부회장과 산전 사업부문 부회장을 겸임하며 경영에 전념하고 있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스쿠버다이빙을 취미로 하여 자연스럽게 수중촬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구자균 교우의 작품들은 부채산호, 해마, 바다거북 등 신비로운 해저 생명체의 세계를 독특한 앵글로 포착해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스터디룸과 강의실 맞은편에 조성된 작은 갤러리에서 2013년 3월부터 상설 전시되고 있는 그의 사진들은 '행복한 녹색세상을 만들어가는 Green CEO'라는 전시 타이틀에 걸맞게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시원한 청량제로 기능하고 있다. KL



1. Turtle 바다거북_Sipadan(Malaysia)
2. Mandarin Fish 만다린피쉬_Mabul(Malaysia)
3. School of Jack Fish 잭피쉬_Sipadan(Malaysia)
4. Seafan 부채산호_Palau(Palau)
5. Sea Whip 회초리산호_Palau(Palau)
6. Soft Coral 연산호_Palau(Palau)
7. Seahorse 해마_Dumaguete(Philippines)
8. Coleman Shrimp 콜맨쉬림프_Dumaguete(Philippines)

작품전시 위치
고려대학교 기부자실 기증미디어관 12층 기부자메모리룸

동아리 탐방 / 방송통신법학회

“방송통신 분야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 학회로 오세요” 주1회 오찬 세미나,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학술활동 활발

법학전문대학원의 빠빠한 교과과정 상 학부만큼 활발한 학회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20개가 넘는 자치단체들이 존재한다. 그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진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전문분야 학회로, 소속회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학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지식과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번 호에는 카이스트 전기공학과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출신의 4기 임현수 학우가 회장으로 있는 ‘방송통신법학회’를 소개한다.

김승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KU 방송통신법이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한데, 간단히 소개한다면?

방송통신법은 방송통신위원회, SKT·KT·LGT 등 통신사업자, KBS·MBC·SBS 등 방송사업자, NHN·Daum·Google 등 인터넷사업자, 게임회사나 엔터테인먼트회사 등 콘텐츠 사업자, 삼성·LG·Apple 등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 안랩·IBM·Cisco 등 IT서비스 사업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사업자 등 우리나라 산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T산업을 아우르는 법제입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법적 이슈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문제 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법적 이슈들을 학회 활동을 통해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방송통신법이 행정법, 경쟁법, 지적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을 통합적이고 연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 지식뿐 아니라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함께 길러가며 실무와의 적합성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U 이번 학기에 학회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학회는 2012년에 3기생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법 학회라는 이름하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학회 활동이 전파법 해설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아 활동방향을 조금 바꿔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주제인 방송,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이름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학회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KU 올해에는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저희 학회는 학회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매주 1회 점심식사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소한 용어나 기술, 산업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하는데, 특히 지도교수인 이희정 교수님께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과 같은 관련 법제를 해설해주셔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문제, 주파수 경매 문제 등과 같은 최신 법적 이슈들에 관해 토론회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김창주 ETRI 선임연구원님이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NHN 정책실의 오근숙 과장님이 임시조치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고, 이번 학기에도 KOSCOM의 황석주 차장님을 모시고 증권 트레이딩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정책적 논의에 관한 강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성엽 변호사님을 비롯한 방송통신법 변호사님들로부터 학교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방송통신분야 법률 실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KU 앞으로의 비전은?

방송통신법은 다른 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직은 학생 대다수가 방송통신법을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데, 저희 학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방송통신법 분야의 여러 학문적 논의에 저희 학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학회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길 바라며, 나아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순한 법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 및 신기술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법률가로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미래에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야 법률실무를 이끌어갈 법조인들이 되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KL**



“법조계를 이끌 거목으로 성장하라”

고려대학교 법학과 69학번 동기회가 최근 분원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기증했다. 예로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집 안에 회화나무를 심으면 문리가 트인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래서 회화나무는 선비나무 또는 학자수라고도 불린다. 69학번 동기회는 “후배들이 장차 법조계를 이끌 거목이 되기를 기원하며 회화나무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응송강은 선배들의 마음이 초겨울 한파를 녹일 듯 따스한 세미이다. **KL**

건강 칼럼 자연법칙을 따르는 신체의 건강

건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다. 신체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정신은 마음의 법칙을 따른다. 여기서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신체의 건강을 살피기로 한다.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장기, 바이탈오간과 건강

뇌, 심장, 폐, 간, 신장은 바이탈오간(vital organ), 즉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이며 건강의 기본이다. 이런 장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건강에 위함하다. 예를 들어 담배는 폐에 지속적인 자극을 준다. 이런 자극은 바이탈오간의 강인성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버티기에는 무리다. 즉 2·30대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으나 40대에 노화에 의하여 기능 감소와 함께 축적된 데미지가 증폭되면 50대 초반에 폐암이 발병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술은 두 가지의 문제를 유발한다. 직접적인 문제는 간에서 해독을 하여야 하므로 간에 무리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코올의 높은 칼로리가 지방으로 간에 축적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이 축적된 간은 지방간이다. 이로 인하여 간 기능은 더욱 약화되고 이 역시 폐와 마찬가지로 노화와 함께 지방간에서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진행된다. 이 두 가지는 치명적 장기의 암이기에 진단 확정 후에 통상 폐암은 1년, 간암은 6개월이면 사망한다. 심장은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노폐물이 많으면 위험한데, 이때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혈증만 방지하면 문제가 크지 않다.

장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당뇨병과 고혈압

바이탈오간 이외의 장기의 문제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과 고혈압이다. 당뇨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면 체중의 인슐린 분비가 가장 중요하다. 즉 인슐린은 하루 3회 규칙적으로 분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규칙한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불규칙하게 하고 결국에 노화가 되면서 자연 인슐린 펌프가 고장이 나는 것이다. 당뇨병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평균수명을 10년에서 20년 줄이는 악효과를 야기한다. 고혈압은 혈관의 탄력 문제이다. 지방과 소금의 섭취는 혈관 속의 지방 농도를 증가시키며 혈관의 탄력을 감소시켜 고혈압을 유발한다. 고혈압은 장기간에 걸쳐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켜 평균수명을 역시 10년 정도 단축시킨다. 이상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유지 상식이며, 이에 어긋나는 것을 건강수명 90세에서부터 제한하면 그것이 개인의 본인수명이 된다.

규칙적인 식사 등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해야

결국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변비와 피부 트러블 등의 연관 질환이 유발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저염, 저지방식은 혈관관련 질환을 막는다. 허물며 담배는 논할 바 없고, 술이 좋다는 보고는 장사꾼들이 하는 '너무 나쁘다'의 방어적 표현이다. **KL**

최용현 STM치과 원장(DDS, MS, PhD)

현장통신

고연전을 더욱 뜨겁게 달군 법전문원 학우들의 열정

김혜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올해 정기 고연전은 2013년 9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기 고연전은 1925년 5월 30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친목 스포츠 행사로, 단순히 경기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교 학생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한마당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이다.

행사와 관련하여 양교의 5개 운동부의 경기만이 아닌 학생들의 축제 '고연제'와 함께 양교 합동방송제, 합동 응원 에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응원전 참여로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올해 정기 고연전 역시 학생회의 기획 하에 둘째 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기를 관람하고 열띤 응원을 했다.

팽팽한 접전 끝 2승1무2패로 무승부 기록

이번 고연전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가 2승1무2패로 종합 성적 무승부를 기록했다. 고려대는 대회 둘째 날인 2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2대3으로

졌지만 앞서 열린 럭비에서 20대17로 이겼다. 특히 농구에서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아마추어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한 고려대학교가 2쿼터부터 가공할 득점력을 뽐내며 연세대에 75대62, 13점 차로 승리를 거뒀다. 야구에선 연세대가 3대1로 이겼고, 아이스하키는 2대2로 비겼다.

학생회가 마련한 뒤돌이로 원우간 유대 강화
둘째 날, 단체 관람 행사가 끝난 후 참살이 길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고연전 행사의 대미를 함께 장식하였고,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졸업생 선배님들도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회 주도 하에 학기마다 한 차례 이상 모두가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학 공부에 매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역시 공부만큼이나 소중한므로 이번 정기 고연전은 1학기의 체육제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가장 큰 행사로서 진정한 고려대학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KL**

공익법률상담소 CLEC 조정클리닉 신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교 법전문원 교수 4명 조정위원으로 위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3일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주무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배당된 사건들은 조정위원인 교수들의 책임 하에 조정을 시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재판연구원으로 참여해 자료조사나 법률검토 등을 맡는다. 서울지방법원은 조기조정 사건 중 해당 로스쿨이 있는 지역의 사건, 인근 주민 간의 다툼, 교수·학생의 전문성과 교육에 필요한 사건을 우선 배당한다. 이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CLEC는 조정클리닉을 신설하여 올 여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황정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학생 25명, 재판연구원으로 참여...

자료조사와 법률검토 수행

현재 총괄조정위원으로 지정된 CLEC 부소장 김계완 교수 외에 윤남근 교수, CLEC 소장이자 조정클리닉 담당 지도교수인 정영환 교수, 최은순 겸임 교수가 조정위원으로 있다. 2013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25명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조정클리닉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 조정 사건 당 1명의 조정위원과 2명의 소속 학생들이 배정되고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학생들은 전원 활동에 앞서 비밀유지서약을 작성·제출하였다.

조정 장소는 교내 CJ법학관 410호에 설치된 중재심리센터이다.

이외에 대면 회의는 회의실, 법원조정실에서만 가능하며 그 밖의 사적 장소에서의 회합은 금지된다.

당사자 합의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조기 조정은 변론기일 전에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조정이다.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조기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총괄조정위원에게 배당된다. 총괄조정위원은 직접 또는 담당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기조정기간은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이 배당된 때로부터 45일 이내이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원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기조정기간 중에는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지정된 조정 장소에서 조정위원과 쌍방당사자는 가능한 한 대면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전화회의를 할 수 있다.

조정 효과는 조기조정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본안사건은 종료된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소송으로 복귀하여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조정 종료 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에게 합의서를 첨부한 사무수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학생 실무경험

살는 데 도움

이 과정에서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소속 학생들은 조정용 스캔기록을 통해 사건개요를 파악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쌍방 당사자가 참석하면, 중재심리센터에서 담당 조정위원 교수와 함께 대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대면회의를 통해 조정위원과 당사자 쌍방이 해결책을 협의하고 건설적 대안이나 합의를 모색하게 된다. 담당 조정위원 교수는 조정 종료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판사에게 사무수행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담당 소속 학생들은 조정용 스캔기록을 반납하고 최종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도교수에게 전달한다.

참여 학생 대상 강연, 세미나 등

조정교육 활발

조정클리닉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된 조정사건의 해결 외에 각종 세미나를 통해 소속 학생들의 조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정영환 교수의 '조정 전반의 이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같은 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이영진 부장판사의 '법원 조정제도의 이해와 조정기법, 조정사례'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11월 4일에는 윤남근 교수의 '조정기법'강연과 '조정클리닉 발제' 세미나가 열렸다. KL



학생회 소개

제 6대 학생회 "같이 걸음? 동행(同行)"은 지난 3월 21일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4월 1일에 임기를 시작했다. 회장단은 학생회장 4기 이상돈, 부학생회장 4기 박상환, 5기 박정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부는 총 12개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5명의 4기 국장들 14명의 5기 국장으로 이루어진 총 29명의 인원이 집행부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협력국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활발한 대외교류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조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국 회계장부 및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학생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전략기획국 설문조사 주제 선정 및 항목 정리, 건의안 제출에 대한 접근방식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하는 부서이다. CJ열람실 배정과 관련하여 학교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학내 중요한 의제사항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

교육지원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을 건의·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기술문제 업로드, 수강신청 및 계절학기 설문조사, 강제분반 관련 건의안 작성, 성적 시상식 폐지 건의안 작성, 변호사 시험 대비 논의 등의 활동을 하였다.

행정자치국 학생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의견을 모으고 학교에 이를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의 소리함 설치 및 관리, 신법학관 지하 사물함 배정 관리, CJ법학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학생 건의사항 수렴 등이 주요 활동이다.

정보통신국 홈페이지 관리 백업과 사진 등의 기록, 각종문서 서식 작성, 홍보물 제작, 총회개최 시 PPT 작성 등을 하는 부서이다. 학생회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고, 체육대회, 고연전 등의 학교 행사 사진 및 동영상상을 기록하였다.

문화국 학교의 각종 문화행사 등의 기획과 진행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체육대회 '어울림픽'을 기획·진행하였고, '고연전' 응원기획, 티셔츠와 깃발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학생복지국 따뜻한 분위기 형성과 학우들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지원한다. 학우들의 기증을 통한 '양심우산'제도 시행 및 관리, 시험기간 응원을 위한 아식 행사 진행과 매월 학우들의 생일포스터 게시 등의 활동을 했다.

취업지원국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준비를 학교차원에서 지원, 선후배와 동기간 취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을 하며, 여름방학 로펌 실무수습을 앞둔 2학년생들을 위해 컨퍼런스 3학년생들과의 접촉을 로펌별로 개별적으로 주선, 전략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KL

양현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학생회장 인사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따뜻한 리더의 요람 되자”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대 학생회장 이상돈(4기)입니다. 지난 4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제서야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신영호 원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학생회장단과 집행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학사지원부·학생지도센터 교직원 분들과, 건물 내 보안과 청결 유지를 담당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큰 보람을 느끼며 힘든 줄 모르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집행부 국장님들께도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내 구성원 간 단합증진, 봉사활동 수행에 보람 맛보

점점 치열하고 각박해져가는 학업 여건 속에서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따뜻한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학내의 따뜻한 온기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학생회장에 취임한 이후 벌써 8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의 리더가 될 예비법조인 집단으로서 뛰어난 법률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적기여 품성을 갖춘 따뜻한 법률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학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당초 목표했던 것들 중에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가슴 벅차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봄 체육대회·가을 정기전 단체관람 등의 행사를 통해 교수님들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이 단합하고, 학교 인근 지체장애아동 복지시설(승가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미미하지만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눴던 경험들은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한, 임기 중에 CJ 제3법학관 개인열람실 배정이 마무리되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개인 학습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조속히 입실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주신 신영호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시험 지원과 신입생OT 등 행사 준비에 만전

남은 4개월간의 임기 동안에는 3학년 선배님들의 변호사시험 지원과 6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졸업생 홈커밍 데이 행사 진행을 중심으로, 학생회장 임무 수행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여 장기적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따뜻한 리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치열해진 변호시장 환경 탓에 학생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미소가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애정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미래는 누구보다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재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는 심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급작스럽게 씌는해진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환한 미소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대 학생회장 4기

이상돈 올림



‘바른라운지’ 조성, 현판식 개최

5년간 발전기금 4억 5천만 원 기부 약정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감사의 뜻 전하고자 CJ법학관 3층에 라운지 조성



고자 CJ 법학관 3층 로비에 194.61㎡(약 58.97평) 규모의 바른라운지를 조성하고, 지난 11월 11일 오후 5시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정인진, 김재호 대표 변호사, 박재필 변호사 등 10명과 본교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 안효질 교무부원장, 이주원 학생부원장, 하태훈 법학연구원장, 정영환 공익법률상담소장, 윤영미 교수, 김제완 교수, 이황 교수 등 8명이 참석했다. 또 학생회에서는 이상돈 회장과 박정은 부학생회장 등 2명이 참석해 꽃다발을 증정하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날 현판식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소속법인 차원에서 본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온 박재필 변호사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K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본원에 5년간 총 4억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부터 매년 기부금을 쾌척해온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감사의 뜻을 전하

고, 소속법인 차원에서 본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온 박재필 변호사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KL**

GRADUATE INTERVIEW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모교는 나의 긍지요 자부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81학번인 박재필 변호사는 개인 차원의 발전기금 모금은 물론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5년간 총 4억 5천만 원의 기부약정을 하도록 이끌어냈다. 존경받는 법조인이자 ‘고대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후학양성을 위한 자원마련에 앞장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박재필 변호사를 만나, 남다른 모교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KU 오랜 기간 동안 법조인생활을 하시면서 지니 시게 된 철학이나 원칙이 궁금합니다.

제가 23년간 법관으로 재직할 동안에는 오직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에게 부여된 법관이라는 권한과 직무는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생각에, 야근을 일삼으면서도 나름대로 행복감과 일면 두려움, 고독감 속에 생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점차 피하게 되고 친구들은 저를 건방지다고 오해하기도 하였지만, 제 운명이라 여기고 정말로 좁은 우물 안에서 고독을 감수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한 바가 있어 천직인 법관의 길을 떠나 2009년 3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후,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법관으로 있을 때 바라보고 생각했던 세상과는 달리 현실의 세상은 너무도 무서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또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정말로 법관의 말 한마디, 재판 태도 하나에 일희일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재판이 실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며, 많은 국민들이 법관을 성직자처럼 존경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법관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실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리는 변호사, 의뢰인이 처한 진실을 최대한 알리려는 변호사라는 원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KU 변호사님께 고려대학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고려대학교란 어머니 같은 마음의 고향이며 안식처입니다.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고려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진실하고 역동적이며 인간적”이라는 말을 늘 듣곤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된 것도 고려대학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평생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KU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5년간 4억 5,000만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노고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2009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법과대학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양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부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아, 로펌 경영진에게 고려대학교 법전문에도 발전기금을 기부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대표 변호사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님 중 고려대학교 출신이 저를 포함하여 2명밖에 없어,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들로부터 기

금을 모으기가 난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로펌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님들 중 고려대학교 출신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은 다음, 이를 내세워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로펌 내에 가칭 ‘고사모(고대를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유명단체를 내세워 자녀나 가족 중에 고려대학교 출신이 있는 분, 장래 자녀를 고려대학교에 보내실 분, 고려대학교에 한번이라도 가 보신 분은 동참해 달라고 호소와 협박을 일삼았고, 그 결과 21명의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동참을 해 주시어 결국 4,500만 원이라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저희 로펌에서 4,500만 원을 합하여 우선 첫째인 2009년 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일을 성사시켰고, 향후 5년간 같은 액수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KU 고대인으로서 다른 교우나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고려대학교를 믿고,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로 생각하고 있으며, 졸업생들 사이에는 서로 친형제처럼 이끌어주는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후배 재학생 여러분들도 고대인의 긍지를 잃지 마시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후배 분들은 법조 직업에 나오면 누구나 우선 신뢰감을 주고, 알게 모르게 선배들이 이끌어 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학문적, 인격적 수양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L**

이지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81학번인 박재필 변호사는 1987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09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3~2006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노동기초이론 담당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9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다.